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10월 20일 문화의 날. 이렇게 나열하고 보니 10월의 의미가 더욱 새롭습니다. 나라를 열고, 자기네 말을 담아내기에 딱 맞는 문자까지 만들어 자기네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나라. 이런 멋진 나라가 이 지구상에 몇이나 될까요? 그런데도 정작 우리는, 자신의 싱싱한 아름다움은 망각한 채 유명 연예인 흉내내기에만 여념이 없는 철부지 아이들 처럼, 우리 안의 아름다움에는 눈뜨지 못하고 남의 것 베끼기에만 정신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자문해 봅니다. 하여, 10월에는 청소년 여러분에게,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우리말의 맛과 멋을 흠뻑 느껴볼 수 있는 책들을 몇 권 추천하고 싶습니다.

문화의 달에 우리말, 우리 문화 읽기

백화현_관악중학교 교사

《사금파리 한 조각 1·2》 린다수박지음 | 서울문화사 | 각권 184쪽 내외 | 각권 값 7,000원



이 책은 재미교포 2세인 린다수 박의 작품으로, 2002년 뉴베리상 수상작이기도 합니다. 12세기 고려의 작은 항구도시 줄포. 그곳의 한 다리 밑에는 고아소년 목이와 한쪽 다리가 뒤틀어지고 짧은 두루미 아저씨가 함께 살고 있었지요. 두루미 아저씨는 비록 거지예다 다리마저 불편한 장애인인긴 했지만, 곧은 마음과 삶에 대한 예지가 빛나는 멋진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이는 그를 부모처럼, 삶의 스승처럼 사랑하고 존경하며 따랐지요. 그러나 그런 그보다도 더욱 목이를 잡아끌었던 민 영감. 그는 평생을 도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몇 날 며칠 공들여 만든 작품일지라도 흠족하지 않으면 바로 집어던져 버리는 결벽증 환자.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목이의 도자기를 향한 열정과 자기에게 바치는 헌신을 뻔히 알면서도 코웃음으로 일축해 버리는 완고한 고집쟁이. 그러나 목이는 그런 그에게서 그 누구로부터도 배울 수 없는 예술적인 감각과 강인한 장인 정신을 흡수해 나갑니다. 이렇게 훌륭한 소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작가들은 아직까지 이런 작품을 만들어내지 못했을까? 이 작품으로 인해 우리의 도자기문화와 장인정신이 세계에 널리 알려지겠구나, 하는 생각에 흐뭇해지다가도, 정작 우리는 우리 것에 대해 너무도 무관심했었다는 생각 때문에 씁쓸함을 지울 수 없게 하는 작품. 더 늦기 전에, 어린이와 청소년뿐 아니라 모든 어른들에게도 읽기를 꼭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재미있다! 우리 고전 1~6》 이해숙의 지음 | 창작과비평사 | 150쪽 내외 | 각권 값 8,000원



《토끼전》, 《심청전》, 《홍길동전》, 《박씨부인전》, 《장화홍련전》, 《북경 거지》. 현재 총 6권이 발간된 창작과비평사의 《재미있다! 우리 고전》시리즈는 드물게 재미도 있고 내용도 알찬,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우리 고전 시리즈입니다. 국어교사라면 누구나 학생들에게 고전을 읽히려다 실패한 경우가 허다할 것입니다. 원전에 충실한 것은 아이들이 재미없어 못 읽고, 흥미롭게 꾸며놓은 것은 너무 멀리 원전을 떠나 있어 오히려 걱정스럽고. 그런데 교사들의 이런 고충과 아이들 마음을 꿰뚫어봐도 한 듯, 올해 창작과비평사가 발행한 이 고전 시리즈는 읽는 재미가 쏠쏠하면서도 내용이 알찹니다. 그리고 작품 뒤에는 참고로 한 원전목록 소개와 작품해설까지 곁들여 있어 작품에 대한 이해도 한층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누구에게라도 읽기를 권합니다.

《시가 내게로 왔다》 김용택 지음 | 마음산책 | 128쪽 | 값 5,500원



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풍부하게 가꾸어주는 일말고도, 그 나라의 언어를 갈고 다듬어 그 언어만의 독특한 향기가 세상에 흩날릴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들뜬에 피어 있는 갖가지의 꽃들, 40억도 넘는 사람들 중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이 경이로움과 안도감. 문화의 발전은 획일이 아니라,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것들의 조화임을, 그 풍성함과 경이로움이 바로 우리 삶을 신비롭게 하여 활력 넘치게 함을, 이 시집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불현듯 깨닫습니다. 시인 김용택이 사랑하고, 감동하고, 회고하고, 전율한 시들. 내용은 내용대로, 언어는 언어대로 우리를 사랑·감동·회고·전율케 합니다. 한글날에 다시 한번 이 시들을 읽으며, 이렇게 우리 마음 구석구석, 저 정수리에서 심연의 바닥 끝까지 절절히 표현해 낼 수 있는 언어를 주신 분들께, 우리말의 진한 향을 피워 봉헌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 않을까요? ☺